

CELLO TANZ

JINHO HONG CELLO RECITAL

CREDIA MUSIC & ARTISTS

Design your *Life*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다양한 경험
클럽발코니와 함께하세요



(c)문혁은

FRIENDS

무료회원
가입비 : 무료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FOC 제휴처 혜택 제공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혜택

· 공연할인 5~30%
크레디아 및 파트너사 공연예매시
(공연별 최대 4매)

SMART

일반회원
가입비 : 3만원
유효기간 : 1년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연 4회)
크레디아/ 파트너스 기획공연 5~30% 할인
크레디아 기획공연 티켓오픈 SMS
단독 선예매,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북 제공

· 티켓오픈 SMS

티켓오픈 알림 SMS/ 단독 선예매
(크레디아 기획공연 예매시)

· 수수료 면제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렉처, 공연, 영화 등 이벤트 참여

CIELOS Club

후원회원
가입비 : 200만원
유효기간 : 10년

SMART 회원 혜택 기본 제공
연간 4회 이상의 프라이빗 행사 초대
공연 패키지 30~50% 할인 구매좌석 우위
씨엘로스 투어상품 선예매

· 매거진, 프로그램북 제공

클럽발코니 매거진 무료배송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 증정

· FOC 제휴 할인

클럽발코니 제휴 파트너사 할인혜택 제공

Jinho Hong Cello Recital

<CELLO TANZ>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첼로 탄츠〉

2021년 7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30PM Wednesday, July 21, 2021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CREZIA

첼로, 홍진호	Jinho Hong, Cello
클래식 기타, 김진세	JinSae Kim, Classical Guitar
피아노, 조윤성	YoonSeung Cho, Piano
바이올린, 안세훈	Schoon Ahn, Violin
바이올린, 송태진	Taejin Song, Violin
비올라, 조재현	Jae Hyun Cho, Viola
첼로, 윤석우	Seokwoo Yoon, Cello
콘트라베이스, 김영후	Hoo Kim, Contrabass
드럼, 서수진	Soojin Suh, Drum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작년 여름 팬데믹으로 불가능할 뻔했던 purify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울먹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던 감동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만 음악의 힘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한번의 삶의 용기를 얻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솔리스트로서 연주하는 것이 저의 큰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늘 아낌없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첼로 리사이틀의 경우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의 듀오 연주가 일반적이는데 현악기 특유의 입체적인 울림과 미세한 떨림까지 들려드리고 싶어 오늘 공연에는 현악 시중주가 저의 첼로 소리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현악기 가족이 들려주는 음악적 대화에 귀 기울여 주시면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는 아일랜드 풍의 따뜻하고 유쾌한 음악을 시작으로 하나 둘 합류되는 재즈 아티스트들이 색채를 더해줍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협업을 통해 펼쳐질 흥미로운 빛깔의 음색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빛나는 수많은 별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리 내는 모든 음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반짝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 현악 시중주 멤버로 함께해주는 소중한 친구들 안세훈, 송태진, 조재현, 윤석우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진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그의 동료들(김영후, 서수진), 끝으로 호기심 많은 첼리스트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믿음으로 동행해 주는 크레디아뮤직앤아티스트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첼리스트 홍진호 올림

빌라-로보스 <small>Brazil 1887-1959</small>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아리아'	5'
H. Villa-Lobos	Bachianas brasileiras, No. 5 'Aria'	
알베니즈 <small>Spain 1860-1909</small>	스페인 모음곡 1번, Op. 47-5, '아스투리아스'	6'
I. Albéniz	Suite Española No.1, Op. 47-5 'Asturias'	
부르크뮐러 <small>Germany 1806-1874</small>	첼로와 기타를 위한 3개의 야상곡(녹턴)	10'
F. Burgmüller	3 Nocturnes for Cello and Guitar	
안성민_현악기 편곡 String arranged by Seongmin Ahn		
차이콥스키 <small>Russia 1840-1893</small>	6개의 소품, Op. 51, TH 143-6 '감상적인 왈츠'	5'
P. Tchaikovsky	6 Pieces, Op. 51, TH 143-6 'Valse Sentimentale'	
안성민_현악기 편곡 String arranged by Seongmin Ahn		
버르토크 <small>Hungary 1881-1945</small>	루마니아 민속 무곡, Sz. 68	6'
B. Bartok	Romanian Folk Dances, Sz. 68	
안성민_현악기 편곡 String arranged by Seongmin Ahn		

INTERMISSION

마크 오코너 <small>U.S.A 1961-</small>	아팔래치아 왈츠	7'
Mark O'Connor	Appalachia Waltz	
마크 오코너 <small>U.S.A 1961-</small>	'석회암' - 옛 피들선율	3'
에드가 메이어 <small>U.S.A 1960-</small>	Fiddle tune - Limerock	
마크 오코너 and 에드가 메이어		
라벨 <small>France 1875-1937</small>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M. 19	6'
M. Ravel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M. 19	
조운성_편곡 Arranged by YoonSeung Cho		
	볼레로	8'
	Boléro	
브람스 <small>Germany 1833-1897</small>	헝가리 무곡 WoO. 1, 4번 & 5번	10'
J. Brahms	21 Ungarische Tänze WoO. 1, No. 4 & 5	
조운성_편곡 Arranged by YoonSeung Cho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에이토르 빌라-로보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아리아’

Heitor Villa-Lobos
Bachianas brasileiras No. 5

19세기 후반부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는 중요한 작곡가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곡가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는 유럽의 고전 음악 전통과 조국 브라질의 독특한 음악을 한 데 엮어냈으며, 특히 여러 곡의 교향곡과 관현악을 써서 피아노에 치우쳤던 브라질 음악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 중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작은 역시 <브라질풍의 바흐>인데, 특히 5번 중 아리아(칸틸레나)는 감성적이고 유려한 선율미 덕분에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이다. 원곡은 소프라노 독창과 8대의 첼로 반주를 위한 독특한 편성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편곡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이삭 알베니즈
스페인 모음곡 1번, Op. 47-5
‘아스투리아스’

Isaac Albéniz
Suite Española No.1, Op. 47-5
‘Asturias’

스페인 출신의 알베니즈는 데 파야, 그라나도스와 더불어 오랫동안 서양 음악의 변방에 머물렀던 스페인 음악을 다시 비상하도록 만들었던 작곡가 중 한 명이었다. 이들 작곡가들은 스페인의 국민 음악은 민속 음악, 대중음악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해서 ‘그 영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스투리아스’는 본래 <스페인의 노래(Chants d'Espagne)> 중 프렐류드인데 나중에 <스페인 모음곡>에 다시 넣으면서 ‘아스투리아스’로 제목이 바뀌었다. 원곡은 피아노 독주곡이지만 타레가의 기타 편곡을 비롯해서(세고비아가 즐겨 연주해서 유명해졌다) 다양한 편곡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 아스투리아스는 본래 북부 스페인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 는 특정지역보다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플라멩코 색채가 짙은 민속적인 분위기를 뜻한다.

프리드리히 부르크뮐러
첼로와 기타를 위한
3개의 야상곡(녹턴)

Friedrich Burgmüller
3 Nocturnes for
Cello and Guitar

프리드리히 부르크뮐러는 독일의 음악 가문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그가 남긴 작품은 대부분 가벼운 피아노 소품과 노래인데, 오늘날까지 연주되는 작품은 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과 어린이를 위한 연습곡들이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그중 예외는 아당의 발레곡 <지젤(Giselle)>에 덧붙인 부수음악(Peasant Pas de Deux)과 오늘 듣게 될 ‘녹턴’이다. 세 곡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녹턴’은 당대 파리의 살롱에 잘 어울릴 만한 가볍고 매력적인 작품이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6개의 소품, Op. 51, TH 143-6
'감상적인 왈츠'

Pyotr Ilich Tchaikovsky
6 Pieces, Op. 51, TH 143-6
'Valse Sentimentale'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오페라 등 대곡을 많이 썼지만 틈틈이 사랑스러운 소품도 여럿 남겼는데, 모두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감상적인 왈츠'는 피아노 독주곡이 원곡으로, 1882년에 출판된 <독주 피아노를 위한 여섯 개의 소품>에 담겨 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답게 기교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섬세한 화성과 참신한 구성, 매력적인 선율이 돋보이며 바이올린이나 첼로 편곡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벨라 버르토크
루마니아 민속 무곡, Sz. 68

Bela Bartok
Romanian Folk Dances, Sz. 68

19세기 후반부터 고유의 음악 언어를 추구하던 중부 및 동부 유럽 작곡가들은 그 전시대의 낭만화되고 도시화된 '집시풍' 음악이 아닌 진정한 민속 음악에 주목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작곡가는 버르토크와 코다이로, 두 사람은 헝가리와 그 이웃 나라들을 두루 다니며 수 천 곡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민속 음악을 직접 녹음하고 채보하고 정리했다. 버르토크가 1915-17년 무렵 오랫동안 헝가리 영토였던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루마니아 민속 무곡'이다. 여섯 곡의 짧은 춤곡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모음곡으로, 원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피들이나 피리 같은 민속 악기의 느낌이 잘 살아 있다. 이 곡 역시 피아노 작품이지만 작곡가가 관현악으로도 편곡했고 또 현악기로 연주할 때 더욱 매력적인 것 같다.

마크 오코너
아팔래치아 왈츠

Mark O'Connor
Appalachia Waltz

마크 오코너
에드가 메이어
'석회암' - 옛 피들선율

Mark O'Connor
Edgar Meyer
Fiddle tune - Limerock

마크 오코너는 미국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음악 중 눈길을 끄는 한 가지 요소는 미국의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아팔래치아 지방에서 유행했던 블루그래스(bluegrass)로, 1993년에 작곡한 '아팔래치아 왈츠'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1990년대 요요 마와 에드가 메이어, 마크 오코너가 함께 제작한 같은 제목의 음반을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클래식 음악과 컨트리, 스칸디나비

아반도의 피들 음악과 드론(drone)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친근하게 엮었다. 요요 마의 표현에 따르면 '전통 음악이자 새로운 음악,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음악이지만 독창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회암은 텍사스주에서 예부터 전해지는 피들(바이올린) 선율로 두 선율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곡이다. 일찍부터 여러 음악가들이 또 하나의 선율을 덧붙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편곡해서 연주했는데, 오코너-메이어-요요 마의 또 다른 앨범 <애팔래치아 여행(Appalachian Journey)>에 수록된 이후 마크 오코너가 현악기 이중주로 편곡한 버전이 가장 인기를 누리는 듯하다.

모리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M. 19

Maurice Ravel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M. 19

라벨의 초기작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은 '볼레로' 못지않은 인기작이다. 파리 음악원에 다닐 무렵 라벨은 파리 살롱에서 폴리냐 공비(Princesse de Polignac)와 알게 된다. 공비는 재봉틀 회사('싱거')의 상속녀로 당대를 대표하는 예술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포레, 사티, 스트라빈스키, 미요, 폴랑크, 파야 등 여러 작곡가들이 그녀에게 작품을 헌정했는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이다. 작곡가의 묘사에 따르면 '스페인 궁정에서 꼬마 공주가 추는 파반에 대한 환상'으로, 역사상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옛 이베리아 반도에 대한 상상, 혹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16-17세기에 큰 인기를 누렸던 파반 춤곡을 소재로 고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라벨은 '볼레로'와 마찬가지로 이 곡의 지나친 인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딘가 우아하면서도 멜랑콜리가 흐르는 아름다움은 여전히 듣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원곡은 피아노 작품이지만 작곡가가 직접 관현악으로 편곡했으며, 그밖에 다양한 악기로 연주된다.

모리스 라벨

볼레로

Maurice Ravel

Boléro

때때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불만이나 미움을 느끼기도 한다. 라벨은 '볼레로'의 지나친 인기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래도 '볼레로'는 작곡가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라벨은 1928년 미국 연주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 유명한 선율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결국 같은 선율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오케스트라가 점점 확장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판당고'라고 불렀지만 '볼레로'가 훨씬 더 어울린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제목으로 발표했다.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볼레로'는 '아주 특별하고 제한된, 그리고 단순한 방식의 음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크레센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곡이 시작되면 스네어드럼(snare drum)이 볼레로 리듬을 연주하는 가운데(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플루트를 시작으로 몇몇 독주 악기들이 묘

한 이국 풍의 선율을 연주한다. 선율이 되풀이되면서 다양한 악기들이 주선율과 반주를 넘나들며 규모와 다이내믹은 점점 더 확대되고, 정점에 도달하면 C장조는 갑자기 E장조로 바뀌며 강렬한 충격을 준다. 원곡인 관현악곡 외에도 초연 이후 이런저런 편곡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요하네스 브람스
헝가리 무곡,
WoO. 1, 4번 & 5번

Johannes Brahms
21 Ungarische Tänze
WoO. 1, No. 4 & 5

브람스는 어린 시절부터 헝가리 집시 음악, 혹은 ‘집시풍’ 대중음악에 익숙했다. 고향인 함부르크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모인 헝가리 사람들을 많이 접했고 또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Eduard Reményi)와 연주 여행을 다니며 즉흥적으로 연주한 적도 많기 때문이다. 브람스는 이렇게 가볍게 연주하던 헝가리 선율을 21곡으로 정리해서(다만 2부에 있는 서너 곡은 브람스가 완전히 새로 쓴 독창적인 작품이다) 1869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쳐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으로 출판했다.

브람스 자신은 ‘헝가리 무곡’이 편곡일 뿐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품 번호도 붙이지 않았지만, 짐록(Simrock)이 출판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브람스의 명성과 재정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중부 유럽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집에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이른바 ‘가정 음악(hausmusik)’을 위한 거대한 시장이 있었고 ‘헝가리 무곡’은 ‘맞춤형 아이템’이었기 때문이다. 훗날 브람스 자신도 몇 곡을 관현악으로 직접 편곡했고 드보르자크부터 지휘자 이반 피셔까지 많은 음악가들이 편곡에 가세했으며, 요아힘의 바이올린-피아노 편곡을 필두로 다양한 편곡 형태로 연주되며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늘은 매혹적인 서정이 흐르는 4번, 그리고 전곡 중 가장 유명한 5번을 독특한 편곡 형태로 감상하게 된다.

글 | 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첼리스트

홍진호

Jinho Hong

Cellist

첼리스트 홍진호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를 졸업한 후 도독하여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Master) 및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ndiplom)학위를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으로 (mit Auszeichnung) 졸업하였다. 섬세한 표현력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첼리스트 홍진호는 국내에서 코렐리 앙상블과 협연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SNUPO, 협 스트링, 꿈의 오케스트라, 서울대학교 현악합주 오케스트라,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춘천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순천만 국제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국외에서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독일중부 챔버 오케스트라 (MDR 라디오를 통해 독일 전역에 생중계), 불가리아 슈멘 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여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육영재단과 함부르크 오스카 앤 베라 리터 장학재단(Oscar Und Vera Ritter-Stiftung)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콩쿠르 1위, 독일 뷔르츠부르크 멘델스존 콩쿠르 1위, 프랑스 그랜드프라이즈 비루투오조 국제 콩쿠르 1위,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콩쿠르 2위, 프랑스 보르도 국제 콩쿠르 특별상(구 에비앙 콩쿠르), 중국 쉐펄트 국제 콩쿠르 특별상, 스위스 조르지오 베르가모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고 프랑스 일자크 국제 콩쿠르 세미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클래식 음악 콩쿠르 전체 대상, 서울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콩쿠르 전체 대상, 성정 난파 콩쿨 첼로부문 대상, 서울 포네클레식 콩쿠르 대상, 서울 바로크 합주단 콩쿠르 1위,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3위, 세계일보 콩쿠르 3위, 경원음악 콩쿠르 1위, 수원여대 콩쿨첼로부문 1위, 예원서울예고 실내악 콩쿠르 1위, 앙상블 유림 유망 아티스트 오디션 합격 (듀오, 현악사중주 부문) 등 다수의 국내외 콩쿠르를 석권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귀국 이후에는 광주시립 교향악단, 성남시립 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으로 활동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실기 지도 강사를 역임하였다.

2016년 예술의 전당에서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2019년 금호아트홀, 국제아트홀(2회 공연), 금호아트홀 연세에서의 독주회에서 모든 공연 연속 매진을 기록, 2019년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우승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월간 객석 2019년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는 이탈리아 Ferdinando Garimberti (in Milano 1954)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김진세 클래식 기타

Jinsae Kim Classical Guitarist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는 2008년 18살의 나이로 독일 유학을 시작하여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교 디플롬과정과 쾰른/부퍼탈 국립음악대학교 마스터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안드레스 세고비아 국제 기타 청소년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2014년도 게벨스베르크 국제 기타 콩쿠르 2위, 코블렌츠 국제 기타 콩쿠르 3위, 아헨 국제 기타 콩쿠르 3위, 2015년 코블렌츠 국제 기타 콩쿠르 2위와 ‘호아퀸 로드리고’ 특별상 수상, 리기타 국제 기타 콩쿠르 1위, 2017년 아헨 국제 기타 콩쿠르 2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 경력을 쌓았다.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치며 정명환, 오승국, 장승호를 사사했으며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라이너 펠트만, 쾰른 음대에서 게하드 라이헨바흐를 사사했다.



조윤성 피아노

YoonSeung Cho Pianist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프로듀서 조윤성은 미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계 재즈 거목들의 러브콜을 받은 이 시대 최고의 젊은 재즈 뮤지션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립음악대학 클래식 피아노학과와 미국 버클리음대 재즈 피아노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뒤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재즈학을 전공하면서 미국 전통 재즈의 섬세함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자기 스타일을 만들었다.

국제 재즈 피아노 대회인 마리스알 소랄(프랑스 파리)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그는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허비 행콕의 눈에 띄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 7명만 뽑는다는 ‘멜로니어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 멤버로 발탁되었다. 이후 허비 행콕과의 유럽 순회공연을 비롯해 데이브 그루신, 테렌스 블랜차드, 웨인 쇼터 등 대기들과 공연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움브리아 재즈 페스티벌, 세인트루시아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등 유명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했고, 프랑크 시나트라 롱킹 빅밴드 수석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했다.

3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했으며, 기타리스트 김민석, 첼리스트 이보선, 피아니스트 이루마,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 윤종신, 루시드 폴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스트링 콰르텟
String Quartet



안세훈 바이올린

Sehoon Ahn Violin



송태진 바이올린

Taejin Song Violin



조재현 비올라

Jae Hyun Cho Vi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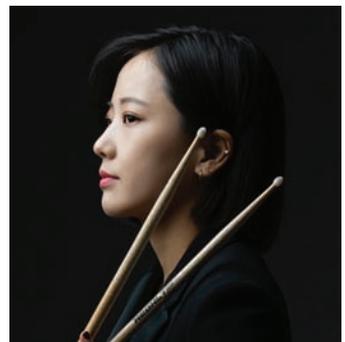
윤석우 첼로

Seokwoo Yoon Cello



김영후 콘트라베이스

Hoo Kim Contrabass



서수진 드럼

Soojin Suh Drum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유할 줄 아는 모든 회원에게
훌륭한 음악과 그것을 둘러싼 울림있는 경험을 드리려고 합니다



STRADEUM
ULTIMATE SOUND
EXPERIENCE

회원가입(120만원/년) · 대관(50만원/시간) · 문의 02-3019-75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51 / 화-토 17:00~24:00 / www.stradeum.com



LORD AND TAILOR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첼로 탄츠>
그의 활이 춤춘다



첼리스트 홍진호가 본격적인 클래식 레퍼토리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첼로 탄츠> 공연에서 홍진호는 빌라-로보스, 알베니즈, 부르크뮐러, 버르토크, 라벨, 브람스 등 춤곡을 기반으로 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사람의 목소리처럼 편안하고 조용할 것만 같았던 악기, 첼로가 춤곡을 만나 얼마나 다양한 얼굴과 매력을 발산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풀어낼 홍진호의 모습도 궁금하다.

첼로가 너무 좋았던 젊은이

홍진호의 어머니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과학 교사였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많은 음악을 들었던 홍진호는 중학교 2학년,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하는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듣고서 심장이 울리고 등골이 오싹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반대하는 부모님께 한 달 넘게 떼를 쓴 끝에 첼로 레슨을 받게 됐다. 춘천시립도서관장이셨던 할 아버지를 따라 자주 놀러 갔던 도서관에서 월간 <객석>을 보고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예술의전당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가서 공연도 보고 왔다. 어머니는 여름 음악캠프를 가고 싶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캠프만 보내주면 이제 공부에 전념하겠지 생각했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음악을 전공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아들한테 음악 전공자가 되라고 등 떠미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학도 진학을 준비하던 아들이 음악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서울예고 입시를 치르게 했는데, 합격해버린 아들을 말리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첼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채 예고에 들어가니 처음엔 따라가기 바빴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고, 음대 입학 후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더 재미를 느끼게 됐죠. 선생님들이 저를 기다려주셨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었어요.”

무엇에 이끌려서 첼로에 인생을 걸었을까. 이 악기만의 특별함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첼로는 사람 목소리 같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첼로가 대중음악이나 성악가와 함께 연주할 때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인간 목소리와 닮았기 때문 같아요. 가끔 사람의 허밍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무대 위에는 더욱 화려하고 반짝이는 악기들이 있지만, 첼로는 스스로 솔리스트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악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두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멋진 악기예요.”

첼로의 한계, 첼로의 무한한 가능성

홍진호는 서울예고, 서울대를 거쳐 뷔르츠부르크 국립 음대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만장일치 만점으로 졸업한 클래식 음악계의 재원이다. 프랑스 그랑프리 뷔르투오조 국제 콩쿠르 1위,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 음대 콩쿠르 1위, 멘델스존 콩쿠르 1위,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콩쿠르 2위 등 각종 콩쿠르 수상 경력까지 갖췄으니 클래식 음악가로서 당연히 활동을 시작해도 좋았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슈퍼밴드’에 도전하게 됐을까.

“한창 공부할 때에도 협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실내악도 좋았고, 국악이나 미술 전공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기도 했죠. 독일에서 한 교수님의 곡을 연주할 일이 있었는데, 첼로와 재즈 베이스, 전자음악이 뒤섞인 곡이었어요. 이런 소리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그것도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교수들이 이런 곡을 쓰고 무대에 올린다니, 나도 언젠가는 동시대 음악과 호흡하는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귀국 독주회를 연다고 했을 때, 연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민 없이 초대권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지는 당황했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한다. 귀국 독주회인데 누가 티켓을 돈 주고 사서 오겠느냐”고 했다. 두 번째 독주회 때에는 초대권을 한 장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티켓이 100장이나 팔렸다. 공연을 마친 후 ‘유료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영화 볼 때처럼 음

악기들이 준비한 무대도 꼭 티켓을 구입해서 가달라” 얘기했다.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건방지다, 유난 편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때 그는 관객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발레나 뮤지컬, 다른 장르와 비교할 때 클래식 공연은 넓은 공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연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조명, 레퍼토리 구성, 내레이션 등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작전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했다.

“학생 때에는 연주를 잘해서 인정받으면 행복하다는 자기만족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직업 음악인에게 내 공연에 돈을 지불할 관객이 있어야 해요. 의미 있는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은 물론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다양한 무대에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러자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정 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나도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슈퍼밴드

“어느 날 슈퍼밴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밴드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 기회에 첼로를, 클래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연을 결정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조바심을 낸다며 출연에 반대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걸 무너뜨리지 말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속상했지만 그래도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방송에 나가자마자 악플이 달렸다. 클래식은 제발 클래식으로 놔둬라,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데까지 나오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되면서 ‘클래식이 왜 안 되는지 알겠다’ ‘변신을 무서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니깐 안 되는 것이다’라며 홍진호의 활동을 지지하는 댓글이 많아졌다. 선입견을 깨는 것도 힘들었지만,

기준에 없던 연주 포맷에 매주 클래식 첼로의 역할을 만들어가야 하니 두렵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역할을 잘해내지 못하면 악기 망신만 시키는 게 아닌가 했지만 용기를 낸 끝에, 결국 홍진호가 속한 팀 ‘호피 폴라’가 우승했다. 우려했던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홍진호를 지지했던 은사님은 “너와 어울린다. 너니까 잘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해봐라” 하며 기뻐하셨다.

“요요 마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연주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가 세상에 끼친 선한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가 딱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저 역시 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첼로를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싶고, 젊은 한국 작곡가들의 곡도 무대에 많이 올리고 싶어요. 하나의 악기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 길을 함께 걷고 싶어요.”

7월 21일, 홍진호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티켓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티켓이 매진됐다. ‘호피폴라’의 무대가 아니라 빌라로보스, 브람스, 라벨, 버토크 등 정통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는 자리이건만, 슈퍼밴드에서 시작된 불꽃이 보수적인 극장의 객석을 다 채워버린 것이다. 어렵게 연주회장으로 발길을 옮긴 관객들에게 본격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기회이니 작품 선정이나 연주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세계적인 재즈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운성과의 협업은 장르를 뛰어넘은 결과물인 만큼 주목해야 할 공연이다. 조운성 재즈 트리오,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 현악 4중주 앙상블과 함께하는 이 무대, 클래식 기타와 첼로, 재즈 트리오와 첼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어떤 변화와 효과를 꾀할까 궁금하다.

“첼로가 연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음악이 뭘까 생각하다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춤곡을 선택했어요. 누구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춤곡을 통해 귀와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고 클래식 음악, 악기와도 친숙해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공연은 첼로와 기타, 현악 4중주의 연주로 현악기들 간의 완전한 호흡을 선보이며 시작된다. 뒤로 갈수록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재즈 피아노와 베이스, 퍼커션이 들어와 색다른 맛이 입혀진다. 악기 연주자들은 선율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빌라로보스 같은 남미 음악의 리듬을 익히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운성의 리드로 새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첼로는 사람의 몸을 끌어안듯 몸체만 한 악기를 안고 연주해야 하는데, 점잖게 현을 그어 내리던 첼리스트는 이제 악기와 한몸이 되어 춤을 주고 있다.

“첼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첼로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재미있고 행복한데, 첼로가 없는 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성악가에게 목소리가 악기인 것처럼 첼로는 내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첼로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첼로를 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합니다. 연습을 안 하더라도 소리를 내야 편해져요.”

홍진호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던 네이버TV 온라인 북콘서트 <진호의 책방>을 통해 책과 음악 이야기를 풀어냈고, 5월부터 시작한 크레디아클래식클럽TV에서는 호스트로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주를 들려주고 음악가와 의 이야기도 풀어내고 있다. 한 연주자가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뤄내는 힘겨운 고군분투가 어떤 형태로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

글 | 이지영 (클럽발코니 편집장)

Special Thanks to

2021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는
아티스트의 노력이
여러분의 후원과 함께
잘 자랐습니다.
'진호의 책방부터,
'첼로 탄츠'까지,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승은
여경
김희정
김혜인
정주혜
박익경
시선아
Lisa
최경진
로셀리나
김문정
피치카토
Jiu Heo
최서연
정수아(마야)
보노야
황필자
김선진
오수희
Whatever
Sanfter Wind
한지
LGE
함서영
박민정
나연
체랑
303호봉자책방
김경준
버터누나
지노
조수민
임성지
신민경
김고은
남수연
이현지

Ivan
김혜지
플라포(정유정)
라라
이예진(에리엘뮤직)
오지현
최보용
전다영
chateau
커피앤티홀릭
시연
김세연
구태희
김채은
보나
이진
이이나
손예준
조혜지
hongjinho_china_fans
곰인형
최은형
꿈에
김은지
나무
김벨라렛파
김이안
지윤&유지
정은숙(Grace)
박아영
김지은
한재진
숯첼
김예지
김서연
박소운
조예슬

박혜순
디그다
Yoko.K
LEE CHIAYI
홍희선
홍진숙
조하영
세진
이유민
이다은
주혜진
윤혜령
도토리악단 명예마에스트로 민지은
오수민
정지운
Maristella
Johnanna
황환천
조은소리
김하연
김정아
황옥남 사비나
박지현
임수준
이선화
미라클
Jena Kim
윤여희
박재우
아로비
김세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



DUO
문태국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베트벤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WoO 46

멘델스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Op.58 |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19

2021.11.30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ity
Summer
Festival

여름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SUMMER BREEZE

7/30 FRI

7/31 SAT

8/1 SUN

루시드폴
스텔라장

권태은의
런치송 프로젝트

박현수의
카라멜 마키아또



롯데콘서트홀

PURIFY LIVE

JINHO HONG

JTBC <슈퍼밴드> 초대 우승팀
호피플라의 첼리스트 홍진호 라이브 앨범

포토카드
증정

PURIFY LIVE

2020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홍진호 단독 공연 'SUMMER BREEZE (부제: PURIFY)'의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
(슈퍼밴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나우와 함께한 에이나우디의 'I GIORNI', <팬텀싱어 3>의 준우승팀 '라비던스'의 테너 존 노가 참여한 'I WON'T GIVE UP', 'THE PRAYER'
재즈 피아노 조윤성이 편곡한 '형가리 무곡 5번',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네오 클래식, 팝, 재즈를 포함한 다양한 매력의 곡이 수록 DU42229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첼로 탄츠>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유료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